

도시직장인들의 은퇴 후 전원주택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전라북도 중소도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After Retiring of City Workers about House for Rural Life Ceremony Investigation Research

-Focused on the Jeollabuk-do small and medium-sized town and city workers-

이 덕 용*

Lee, Deog-Yong

Abstract

The justice of the house for rural life all the member Iran meaning namely, 'countries or the suburb ' a possibility of calling attaches the house in the intention which is and as the country or suburban house there is.

The house for rural life from 19 end of a century Great Britain inferiorly becomes complements the problem points of urban setting the opinion which sees the garden city which appears in the link for with the era is general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most the dwelling environment which is comfortable selects the site becomes the important element.

Our country case in order to send a holiday season weekend from wealthy class of past decimal or the weekend house which builds, is generalized with the recent economic improvement where the form of villa etc. forms a mainstream but.

From the research which sees consequently examines a plan about week life after retiring of the city workers and dwells investigates the contents which is concrete from the family with there is the goal provides a hereafter house for rural life plan at the time of fundamental data in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a.

키워드 : 은퇴, 전원주택, 중소도시, 도시직장인

Keywords : seclusion, house for rural life, medium city, city worker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전원주택의 정의는 전원(田園)이란 의미 즉, '시골의 또는 교외(郊外)'의라는 뜻에 주택을 붙여서 시골 또는 교외주택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전원주택은 19세기말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열악해진 도시환경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타난 전원도시(Garden City)를 그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소수의 부유계층에서 주말이나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건축한 주말주택, 별장 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윤택해진 경제적 수준과 건설기술의 발달, 선진화된 제도와 정책, 주 5일제 근무, 국민의식수준 향상 등의 기반으로 일반화되어 왔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과의 관계 때문에 거주지나 주택에 대한 선택요소가 많지 못했던 도시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는 본인의 욕구에 충실하고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도 한다. 더욱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생활의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7년 74.39세이었던 것이 2008년 현재 80.08세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²⁾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정년퇴직이 60세를 전후한 시기로 볼 때 향후 20년 동안은 청장년 시기에 살아온 환경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1971년에 건설부(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된 표준설계도서³⁾에 관련된 법령이나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 제공하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⁴⁾,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신고제도의 완화조치⁵⁾와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은 은퇴자들이 노후생활을 전원에서 영위하고자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지역과는 상대적으로 지가(地價)가 낮은 농어촌지역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적당한 장소로 선택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완전생명표(각세별).(인터넷 자료: http://kosis.kr/nsportal/abroad/abroad_01List.jsp#)

3)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1971. 3. 11 제정

4)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 용안내서, 2009.11.05(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44호)

5)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정희원, 전북과학대학 건축도목조경계열 조교수, 공학박사

1) 양문규, 전원주택의 공간구성 동향 및 건축적 특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직장인들의 은퇴 후 주생활에 대한 계획과 전원주택에 대한 의식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전원주택 계획 시 입지여건, 주택의 평면 및 구조 등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조사개요

연구방법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건설관련 회사,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집단과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원주택에 대한 내용과 은퇴 후 계획을 알아보았다. 전주시는 광역시가 부재(不在)한 전라북도에서 도청이 소재하고 인구 635,707명(2008년 현재)의 중소도시이다.⁶⁾

설문내용은 은퇴 후를 예상하며 선호하는 전원 및 주생활의 형태와 전원생활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맞는 주택의 유형과 마감재료, 구조 등에 관한 내용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방법으로는 1 : 1 대면이나 전화를 통한 인터뷰조사와 우편이나 E-mail을 이용한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SPSS v12를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선호도와 만족도 관점에서 단순 및 교차분석을 통해 data를 정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부터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고 7월까지 수거, 8월에 분석작업을 완료하였다.

2. 농어촌지역 주택사업

최근 농어촌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관여하게 되는데 마을단위의 농어촌지역 전원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택지조성사업으로는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뉴타운조성사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한 농어촌지역 주택개발사업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⁷⁾이 제정되면서 집단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1991년에는 농어촌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제안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⁸⁾

1995년에는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⁹⁾의 제정과 2005년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추진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농어촌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⁰⁾

여기에 전국 5개소(충북 단양, 전북 고창, 장수 각 100

세대, 전남 장성, 화순 각 200세대) 총 700세대를 선정, 2009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¹¹⁾은 30~40대 젊은 귀농 인력들의 정착을 위해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함과 함께 현재의 고령화·영세화되어 있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¹²⁾

특히 이 사업은 2011년 말까지 완료, 입주하는 시범사업이며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기에 그 결과에 관심을 갖게 한다.

3. 조사결과 분석

3.1 조사대상 모집단의 특성

설문응답자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설문에 답한 응답자 수는 전문가 집단(이하 전문가) 157명(59.0%), 일반인 집단(이하 일반인) 109명(41.0%)으로 총 266명이었다.

주된 연령층으로는 40대가 43.6%로 가장 많았고 30대 35.0%, 50세 이상 10.5%, 20대가 10.1% 등의 순이었으며 남녀 성비율은 남성이 211명(79.3%), 여성이 55명(20.7%)

표 1. 설문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

나 이		빈도수	구성비(%)
20 ~ 29세	전문가	남	9
		여	7
	일반인	남	7
		여	4
소 계		27	10.1
30 ~ 39세	전문가	남	53
		여	10
	일반인	남	18
		여	12
소 계		93	35.0
40 ~ 49세	전문가	남	52
		여	9
	일반인	남	42
		여	13
소 계		116	43.6
50세 이상	전문가	남	15
		여	-
	일반인	남	13
		여	-
소 계		28	10.5
무응답		2	0.8
합 계		266	100.0

6) 전주시 기획예산과, 전주통계연보, 2009, p.62.

7) 법률 제4228호, 1990. 4. 7 제정

8) 이상우,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획의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

9) 법률 제5051호, 1995. 12. 29 제정

10) 이동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28 제정리

1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농어촌 뉴타운 분양홍보 게시(인터넷자료), 2010.

12)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2008. 10. 7일자 보도자료

이었다.

논문 작성 초기,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일반인 집단의 계층별 특성을 찾아 보기 위해 별도의 설문을 제작, 배포하였으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성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유형

성별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기타	계
빈도수	190	8	59	9	266
구성비 (%)	71.4	3.0	22.2	3.4	100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으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71.4%, 연립주택이 3.0%, 단독주택이 22.2% 등이었다.

또한 아파트 거주자 190명 중 면적 66㎡ 미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2%, 66㎡ 이상 99㎡ 미만은 35.3%, 99㎡ 이상 132㎡ 미만은 42.6%, 132㎡ 이상은 11.6% 등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01.0㎡ 면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택지선택에 대한 선호 경향

<표 3>은 전원마을이나 뉴타운개발을 실행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79명이 응답한 주거환경(29.9%)이었으며 입지여건(26.9%), 기반시설(23.9%) 등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가에서는 15.5%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40대 층에서는 평균치와 같은 순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층에서는 주거환경, 기반시설,

표 3. 전원마을, 뉴타운개발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연령별 분류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기반시설	9 (33.3)	23 (24.7)	27 (23.3)	4 (14.3)	63 (23.9)
입지여건	4 (14.8)	25 (26.9)	30 (25.9)	12 (42.9)	71 (26.9)
분양가	3 (11.1)	13 (14.0)	23 (19.8)	2 (7.1)	41 (15.5)
주거환경	11 (40.7)	26 (28.0)	33 (28.4)	9 (32.1)	79 (29.9)
기타	- (-)	6 (6.5)	3 (2.6)	1 (3.6)	10 (3.8)
계	27 (100.0)	93 (100.0)	116 (100.0)	28 (100.0)	26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입지여건 순으로, 50대 이상 층에서는 입지여건, 주거환경, 기반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년을 대비한 입지여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택지가 위치한 장소인데 <표 4>는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장소를 연령별로 알아본 표이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곳은 중소도시(54.9%)이며 농어촌지역(34.5%), 대도시(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에 따른 은퇴 후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장소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농어촌지역	6 (22.2)	26 (28.0)	47 (40.5)	12 (42.9)	91 (34.5)
중소도시	18 (66.7)	55 (59.1)	58 (50.0)	14 (50.0)	45 (54.9)
대도시	3 (11.1)	10 (10.8)	11 (9.5)	1 (3.6)	25 (9.5)
기타	- (-)	2 (2.2)	- (-)	1 (3.6)	3 (1.1)
계	27 (100.0)	93 (100.0)	116 (100.0)	28 (100.0)	26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대도시를 제외한 두 지역의 비율이 90%에 가깝게(89.4%) 나타났고 특히 중소도시가 과반을 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은퇴 후에도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현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대도시와는 달리 짧은 시간 안에 도심을 벗어나 전원지역을 접할 수 있다는 점과 광역시 개념으로 불 때 읍면지역도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되는 것도 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어촌지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농어촌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선호 경향을 나타낸 것이 <표 5>인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직장을 갖는 비율이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으므로 가사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자녀들의 교육과 개인의 취미 및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는데 설문 결과에서도 전체적인 수치(표 4 참조)와 비교할 때 많은 차

표 5. 여성이 선택한 은퇴 후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장소

구분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계
빈도수	15	30	9	54
구성비(%)	27.8	55.6	16.7	100.0

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원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농촌지역이 적당하다는 관념 하에서 은퇴 후 생활을 농촌지역에서 한다고 가정할 때 중소도시인접 읍면지역, 대도시인접 읍면지역, 읍면소재지로 나누어 선호하는 지역을 알아보았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소도시인접 읍면지역, 대도시인접 읍면지역, 읍면소재지 순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인접한 읍면지역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도시인접지역을 선호하는 비율은 20대가 9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세 이상이 89.2%, 40대가 88.0%, 30대가 86.0%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생활, 소비생활 등이 용이한 여건과 젊은 시절 많은 시간을 보낸 지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미로 보여진다.

표 6. 연령에 따른 농촌지역 중 은퇴 후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장소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중소도시인접 읍면지역	17 (63.0)	59 (63.4)	77 (66.4)	16 (57.1)	169 (64.0)
대도시인접 읍면지역	8 (29.6)	21 (22.6)	25 (21.6)	9 (32.1)	63 (23.9)
읍면소재지	2 (7.4)	12 (12.9)	12 (10.3)	3 (10.7)	29 (11.0)
기 타	- (-)	1 (1.1)	2 (1.7)	- (-)	3 (1.1)
계	27 (100.0)	93 (100.0)	116 (100.0)	28 (100.0)	26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주생활의 편리성을 생각할 때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문화·교육·경제·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인접하여 도시지역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택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할 것인지 설문하였다.

<표 7>에 따르면 20분 이내 거리를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42.0%) 30분 이내(36.7%), 10분 이내(14.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20분 이내와 30분 이내의 격차가 모든 연령층에서 5% 이하에서 이루어진 반면 30대에서는 10% 이상의 격차로 나타났고 20대에서만 30분 이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거지가 위치할 택지는 이웃이 될 사람들의 계층이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요소와 더불어 중요한 내용이다. 과거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발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웃

표 7. 연령에 따른 거주지로부터 도심까지의 적절한 거리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10분 이내	3 (11.1)	10 (10.8)	19 (16.4)	6 (21.4)	38 (14.4)
20분 이내	11 (40.7)	43 (46.2)	48 (41.4)	9 (32.1)	111 (42.0)
30분 이내	12 (44.4)	33 (35.5)	43 (37.1)	9 (32.1)	97 (36.7)
상관없다	1 (3.7)	7 (7.5)	6 (5.2)	4 (14.3)	18 (6.8)
계	27 (100.0)	93 (100.0)	116 (100.0)	28 (100.0)	26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또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원마을조성이나 뉴타운개발 등과 같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앞세워 구성하는 경우와 유사 직종, 취미 등을 가진 동호인들이나 친분이 있는 동료, 지인들로 구성하여 택지를 공동 매입, 개발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상대적으로 장단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이웃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개인 부담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의 경제적 문제 등이 있다.

택지선택에 대한 연령별로 선호하는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표 8>이다. 5% 내의 미세한 차이로 전원마을 조성지가 가장 많은 비율(28.4%)로 나타났고 뜻 맞는 사람들끼리 구입한 택지가 27.7%, 농어촌에 현재 위치해 있는 기존 택지가 25.8%로 나타났다. 뉴타운개발지는 15.2%로 다소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뉴타운개발의 경우 최근에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이

표 8. 연령에 따른 주거지가 위치할 택지 대상지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뉴타운 개발지	11 (40.7)	15 (16.1)	10 (8.6)	4 (14.3)	40 (15.2)
전원마을 조성지	7 (25.9)	41 (44.1)	22 (19.0)	5 (17.9)	75 (28.4)
뜻 맞는 사람 끼리의 택지	5 (18.5)	13 (14.0)	44 (37.9)	11 (39.3)	73 (27.7)
농어촌에 있 는 기존택지	3 (11.1)	22 (23.7)	37 (31.9)	6 (21.4)	68 (25.8)
기 타	1 (3.7)	2 (2.2)	3 (2.6)	2 (7.1)	8 (3.0)
계	27 (100.0)	93 (100.0)	116 (100.0)	28 (100.0)	26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에 대한 인식정도가 향상될 경우 다른 택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에서는 뉴타운개발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0.7%) 30대에서는 전원마을 조성지를(44.1%), 40대와 50대에서는 뜻 맞는 사람들끼리 구입한 택지(40대 : 37.9%, 50대 : 39.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택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은퇴 후 주생활에 대한 의식

은퇴(隱退)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직임(職任)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는 것을 말한다.¹³⁾ 학자에 따라서는 1주일에 35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개인의 직업활동이 전임(full-time)에 미치지 못하면서 수입이 연금에 의존하는 상태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¹⁴⁾

이때 은퇴시기는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그리 짧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수입이 대부분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그 계획과 준비는 은퇴 수년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9>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은퇴시기를 분류한 것이다. 표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은퇴를 원하는 경우가 6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1~65세가 22.6%, 66~70세가 5.6%, 71세 이상이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은퇴시기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들의 정년퇴임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직업에 대한 동경과 취업난 및

표 9. 본인이 계획하는 은퇴시기

구 분	빈도수		계
	남	여	
60세 이하	140	38	178 (66.9)
	51	9	
61 ~ 65세	11	4	15 (5.6)
	2	-	
71세 이상	7	4	11 (4.1)
	266	100.0	

주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13) 네이버 인터넷사전.

14) 신승택, 공무원들의 퇴직준비교육 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0.

경제난 속에서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편승, 그리고 보험 및 연금으로의 준비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wo Job을 하거나 Two Job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수입액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근무시간이나 상사와의 관계 등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서 앞서는 또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여 퇴직을 앞당겨 결정하는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성의 경우는 가정에서 주수입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은퇴시기를 빨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대 전후로 답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은퇴 전과 후는 생활환경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족구성원의 변화이다. 은퇴 후에 같이 생활하고 싶은 가족구성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표가 <표 10>이다.

표 10. 연령에 따른 은퇴 후 같이 살고 싶은 가족구성원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부부	13 (48.1)	43 (46.2)	76 (65.6)	25 (89.3)	157 (59.5)
부부 + 자녀	6 (22.2)	20 (21.5)	20 (17.2)	1 (3.6)	47 (17.8)
부모 + 부부	3 (11.1)	11 (11.8)	9 (7.8)	- (-)	23 (8.7)
부모 + 부부 + 자녀	2 (7.4)	10 (10.8)	5 (4.3)	1 (3.6)	18 (6.8)
부부 + 자녀 + 손주	- (-)	3 (3.2)	4 (3.4)	1 (3.6)	8 (3.0)
기 타	3 (11.1)	6 (6.5)	2 (1.7)	- (-)	11 (4.2)
계	27 (100.0)	93 (100.0)	116 (100.0)	28 (100.0)	26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특히 가족구성원은 1970년대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있어서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었고¹⁵⁾ 과거 그 영향이 중장년층에 나타난 특징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연령층에 미치고 있다. 핵가족이란 부부와 미혼의 자식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도 77.3%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과는 반대되는 부모를 부양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부모가 사망하여 부양할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15.5%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핵가족을 가장 원했고(92.9%) 40대가 72.8%, 20대가 70.3%, 30대가 67.7% 순으로 나타났다.

전원생활은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할 경우

15) 김효진, 초등학생의 가족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5.

표 11. 연령에 따른 전원생활 시 가장 불편할 것 같은 사항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판매시설 이용	1 3 (48.1)	2 5 (26.9)	2 7 (23.3)	8 (28.6)	7 3 (27.7)
문화생활 영위	1 3 (48.1)	2 8 (30.1)	3 9 (33.6)	9 (32.1)	8 9 (33.7)
대인관계 관리	- (-)	2 (2.2)	4 (3.4)	3 (10.7)	9 (3.4)
의료시설 이용	- (-)	2 7 (29.0)	3 1 (26.7)	4 (14.3)	6 2 (23.5)
교통상황 불편	1 (3.7)	8 (8.6)	7 (6.0)	1 (3.6)	1 7 (6.4)
주택 유지 관리 곤란	- (-)	2 (2.2)	5 (4.3)	2 (7.1)	9 (3.4)
방법대책 미비	- (-)	1 (1.1)	3 (2.6)	1 (3.6)	5 (1.9)
계	2 7 (100.0)	9 3 (100.0)	1 1 6 (100.0)	2 8 (100.0)	2 6 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가장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33.7%)로 나타났고 판매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 요인의 합이 84.9%로 나타나 주된 불편사항이었다. 연령별로는 의료시설의 이용불편이 30, 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적을 수 있는 20대에서는 응답자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 양식에 대한 의견의 물음에 대한 결과는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생활 양식은 크게 좌식, 입식 및 절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식, 좌식 순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서울에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건축되면서 본격적인 입식생활이 시작되었다. 이후 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의 주생활은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 12. 연령에 따른 선호하는 주생활 양식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좌식생활	1 (3.7)	1 0 (10.8)	1 6 (13.8)	5 (17.9)	3 2 (12.1)
입식생활	7 (25.9)	3 8 (40.9)	4 1 (35.3)	8 (28.6)	9 4 (35.6)
절충식생활	1 9 (70.4)	4 3 (46.2)	5 9 (50.9)	1 5 (53.6)	1 3 6 (51.5)
기 타	- (-)	2 (2.2)	- (-)	- (-)	2 (0.8)
계	2 7 (100.0)	9 3 (100.0)	1 1 6 (100.0)	2 8 (100.0)	2 6 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절충식이 과반을 넘는 비율로 선호되고 있으며 좌식의 경우는 12.1%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생활에 적응된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좌식의 경우 장년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나이 들수록 좌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3.4 주거의 특성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시절 도시직장인들의 꿈이 내 집 마련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조사대상 지역인 전주시 경우는 106.6%에 다다랐다.¹⁶⁾ 30년 이상을 근무한 도시직장인들이 60세를 전후하여 은퇴를 할 경우 대부분은 자기 집을 가지게 된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 거주할 주택 마련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설문하여 보았다. <표 13>에 따르면 15%만이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고 80% 이상이 신축, 유산, 매매 등을 통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은퇴 후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

구분	빈도수	구성비(%)
현재의 집에서 살겠다.	4 0	1 5 . 0
새롭게 건축할 예정이다.	1 7 8	6 6 . 9
유산, 매매 등으로 구한 기존가옥	3 7	1 3 . 9
기타	1 1	4 . 1
계	2 6 6	1 0 0 . 0

특히 신축을 원하는 비율이 66.9%로 나타나 기존의 가옥보다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성향에 맞는 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주거의 유형으로는 이용시기, 이용방법, 양식 등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표 14>는 이용시기에 따른 주거의 유형을 조사한 것이다.

표 14. 연령별 이용시기에 따른 주거의 유형

구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상주형	2 2 (81.5)	7 5 (80.6)	9 6 (82.8)	1 8 (64.3)	2 1 1 (79.9)
주말주택형	4 (14.8)	1 1 (11.8)	1 5 (12.9)	4 (14.3)	3 4 (12.9)
별장형	1 (3.7)	4 (4.3)	4 (3.4)	6 (21.4)	1 5 (5.7)
기타	- (-)	3 (3.2)	1 (0.9)	- (-)	4 (1.5)
계	2 7 (100.0)	9 3 (100.0)	1 1 6 (100.0)	2 8 (100.0)	2 6 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16) 전주시 주택과, 전주통계연보, 2009, p.220(인터넷자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일 거주하는 상주형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1~2회 거주하는 주말주택형이 12.9%, 계절별로나 휴가철에 이용하는 별장형이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특징으로는 상주형의 경우 다른 계층들에서는 80%를 상회하는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50세 이상에서만 큰 차이(15% 이상)를 보이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20%에 가까운 응답자가 주말주택형이나 별장형을 선택했는데 이 경우 도심에 주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지역에 제2의 주택을 갖게 되는 형으로 은퇴 전 대인관계나 자녀, 취미활동 등의 주된 활동지인 도심과 전원생활지를 오가는 1가구 2주택의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년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사정이 좋아지는 등 편리한 교통여건을 이용하여 경제적 여유가 허락할 경우 은퇴 후에도 활동적인 주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용방법에 따라 선호하는 주거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유형은 마당이나 인근에 텃밭이 있어 약간의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전원형, 연못이나 꽃밭 등을 갖추고 일은 거의 하지 않는 레저형, 인근에 논밭이나 과수원 등이 있는 전업농가형으로 대별하였다.

표 15. 연령별 이용방법에 따른 주거의 유형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전원형	1 0 (37.0)	3 6 (38.7)	6 0 (51.7)	1 7 (60.7)	1 2 3 (46.6)
레저형	1 5 (55.6)	4 6 (49.5)	3 9 (33.6)	5 (17.9)	1 0 5 (39.8)
전업농가형	1 (3.7)	6 (6.5)	1 2 (10.3)	3 (10.7)	2 2 (8.3)
기타	1 (3.7)	5 (5.4)	5 (4.3)	3 (10.7)	1 4 (5.3)
계	2 7 (100.0)	9 3 (100.0)	1 1 6 (100.0)	2 8 (100.0)	2 6 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응답 결과는 전원형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레저형이 39.8%, 전업농가형이 8.3%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일은 단순한 정도나 거의 하지 않을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전원형과 전업농가형의 경우 연령층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레저형의 경우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농사일은 연령이 낮을수록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식에 따른 주거의 유형은 한식과 양식으로 대별하였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여 질문하였는데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외부를 양식을 선택한 경우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는 한식, 내부는

표 16. 연령별 선호하는 주택의 내·외부 양식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내·외부 한식	2 (7.4)	4 (4.3)	1 2 (10.3)	3 (10.7)	2 1 (8.0)
외부 한식 내부 양식	9 (33.3)	2 4 (25.8)	3 6 (31.0)	1 0 (35.7)	7 9 (29.9)
내·외부 양식	1 1 (40.7)	4 7 (50.5)	3 1 (26.7)	5 (17.9)	9 4 (35.6)
외부 양식 내부 한식	1 (3.7)	1 0 (10.8)	2 1 (18.1)	6 (21.4)	3 8 (14.4)
상관없다	3 (11.1)	7 (7.5)	1 3 (11.2)	3 (10.7)	2 6 (9.8)
기타	1 (3.7)	1 (1.1)	3 (2.6)	1 (3.6)	6 (2.3)
계	2 7 (100.0)	9 3 (100.0)	1 1 6 (100.0)	2 8 (100.0)	2 6 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양식이 29.9%, 외부는 양식, 내부는 한식이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외부 모두를 한식을 선택한 경우는 8.0%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는 내·외부를 양식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높게, 40대와 50세 이상에서는 외부는 한식, 내부는 양식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층은 양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 이후 장년층에서는 외부를 한식으로 하는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는 기능성을 강조한 양식을 주로 선택하였고 외부는 한식을 선택한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재료는 외부 마감재료를 알아보았는데 응답 결과는 <표 17>과 같다. 소수 의견으로 강재, 드라이비트, 플라스틱 등이 있었으나 가장 많이 선택된 재료는 황토로 35.6%로 나타났고 목재가 26.9%, 벽돌이 16.3%, 콘크

표 17. 연령별 선호하는 주택의 외부 마감재료

구 분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황토	8 (29.6)	2 8 (30.1)	4 9 (42.2)	9 (32.1)	9 4 (35.6)
석재	2 (7.4)	9 (9.7)	7 (6.0)	3 (10.7)	2 1 (8.0)
콘크리트	4 (14.8)	1 3 (14.0)	8 (6.9)	2 (7.1)	2 7 (10.2)
목재	5 (18.5)	2 7 (29.0)	2 6 (22.4)	1 3 (46.4)	7 1 (26.9)
벽돌	6 (22.2)	1 4 (15.1)	2 3 (19.8)	- (-)	4 3 (16.3)
기타	2 (7.4)	2 (2.2)	3 (2.6)	1 (3.6)	8 (3.0)
계	2 7 (100.0)	9 3 (100.0)	1 1 6 (100.0)	2 8 (100.0)	2 6 4 (100.0)

주 : 2명은 무응답자수.
() 안의 수치는 구성비(%)

리트가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황토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50세 이상에서만 목재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황토와 목재는 한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기능적인 면은 양식을 선택하지만 재료는 한옥에 가까운 재료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 중소도시지역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은퇴 후 주생활과 거주할 주택에 관하여 설문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의 분석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문화·판매·의료시설 등의 지원과 이용을 고려하여 도시에 인접한 읍면지역에서 은퇴 후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 50대로 갈수록 목조주택과 좌식생활을 선호하는 등 우리의 한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현재의 40대 이전 연령대에서는 한옥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에서의 좌식생활을 비록 낮은 수치이지만 선호한다는 점¹⁷⁾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서 한옥생활의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개발·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20~30대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은 기피하고 자녀와 함께 황토로 된 가옥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양식은 도시에서의 생활을 유지할 경우 기존 주민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기존 거주민의 측면에서 이주민들의 농어업 생산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귀촌 가구의 유입이 단순한 거주민의 증가라는 점 외에도 점차 쇠퇴하는 농어촌 지역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

최근 은퇴자나 귀농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뉴타운개발과 같이 농어촌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귀촌 가구 요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택지의 위치, 주택의 구조와 재료 등에 관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택지 주변의 농지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먹거리의 불신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나 아동 또는 청소년들의 학습장과 여가활동을 위한 실습의 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의 보급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건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평면을 선택하는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입식, 좌식 등과 같은 주생활의 형태와 마감재료의 재질과 칼라 등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

혀주는 방안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은퇴자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알아본바 향후 이를 토대로 주택의 구체적인 평면 또는 입면의 모델 제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해양부,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1971. 3.
2.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보도자료, 2008. 10.
3.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농어촌 뉴타운 분양홍보 게시(인터넷자료), 2010.
4.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안내서, 2009.11.05(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44호)
5. 전주시 주택과, 전주통계연보, 2009(인터넷자료).
6.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완전생명표(각세별), 2008.
7. 김효진, 초등학생의 가족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 신승택, 공무원들의 퇴직준비교육 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 양문규, 전원주택의 공간구성 동향 및 건축적 특징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0. 이동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1. 이상우,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획의 개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2. 한기준, 2001년 안성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거 개량된 주택의 건축적특성 및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 이덕용, 중소도시 아파트의 입주자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11권 4호(통권 35호), 2009.11.

(집수 : 2010.10.10, 심사완료 : 2010.11.12)

17) 최근에 건축되는 주택의 경우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이 혼합된 절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좌식생활이나 사용되는 재료로 한옥이라 유추한 해석임.